



## 韓國庭園의 構成技法과 그 特徵

文化財管理局 文化財專門委員  
閔 庚 玟\*

- <目 次>
1. 序 言
  2. 韓國庭園의 發達過程
  3. 韓國庭園의 空間構成
  4. 韓國庭園의 構成技法
    - 1) 牆
    - 2) 池 塘
    - 3) 石 造 物
    - 4) 花 階
    - 5) 庭園植物
  5. 韓國庭園의 特徵
  6. 參考文獻

### 1. 序 言

宇宙에는 『Black hole』이라 부르는 所謂 死星을 吸收하는 吸收口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事實이지만 最近에 와서 이와는 反對로 새로운 별을 誕生시키는 『white hole』이라 불리는 宇宙의 또다른 噴出口가 있다는 問題가 새로히 臺頭되고 있으며 이들 新舊별들의 世代交替로 宇宙는 쉬지않고 進化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吸收口가 있으면 噴出口가 있듯이 世上의 모든 것은 「+」가 있으면 반드시 「-」가 있고 陽이 있으면 陰이 따르기 마련이며 이들 서로가 均衡을 이루어 하나의 組織을 形成하게 된다.

우리의 現實속에서도 딱딱한 物體가 있으면 부드러운 그 무엇인가가 있게 마련이고 宇宙의 모든 現象은 太極에서 나온 陽과 陰 두힘의 動靜

\* 國土開發技術士(造景)

\*\* 理學博士

에 依해서 消長되는 것이며 森羅萬象 모두가 陰陽의 活動範圍內에 들어 있다.

天地 明暗 消長 動靜 盛衰 直線과 曲線 男女 關係에 이르기까지 모든 宇宙現象은 그와같은 相對的位置에서 調和를 이루게 된다.

여기에 紹介하고자 한 韓國의 庭園은 陰의要素와 陽的要素가 서로 融合하고 『主從』關係가 明確할 뿐 아니라 周圍景觀을 最大限 尊重하여 自然스럽고 快適한 生活空間을 이루고 있다는 點에서 世界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合自然的인 많은 特徵을 지니고 있다.

本文은 三國時代로부터 朝鮮時代 末期(57. B.C ~1910, A.D)까지에 人工으로 築造한 庭園이나 禁苑을 對象으로하여 文獻과 現地踏査를 通하여 庭園의 發達過程을 살펴보았으며 朝鮮時代(1392 ~1910, A.D)의 庭園을 中心으로 그 空間的特性과 構成技法을 究明하기 위하여 서울의 五大宮을 비롯하여 公州 扶餘, 牙山 潭陽 康津 莞島 井邑 慶州 全州等地的 現存 遺蹟地를 踏査하였다.

### 2. 韓國庭園의 發達過程

漢拏山에서 白頭山에 걸쳐 北에서 南으로 가로 놓인 韓半島는 國土面積의 約七割이 아름다운 名山으로 이어지고 그 사이를 가로지른 맑은 江이 구비쳐흐르고 있다. 또한 氣候가 溫和하고 四季節의 變化가 고루 分布되어 松竹을 비롯한 多樣한 植物資源이 分布되고 있어 예로부터 錦繡江山이라 불리워 왔다.

우리의 租上은 그와 같은 天惠의인 아름다운 江山을 借景으로 活用한 固有의 自然風景式 庭園樣式을 開發하여 發展시켜 왔다.

三國史記에 依하면 百濟 辰斯王 7年(391, A.D)春正月條에서 宮殿을 改築하여 연못을 파고 造山하여 珍貴한 花草를 심고 새와 짐승을 길렀다고 記錄(重修宮室 穿池造山 以養奇禽異卉)이 있으며 이는 韓國庭園의 첫 造庭記錄으로 推定된다.

그후 百濟는 宮闕內에 池塘中心의 禁苑을 造成하였으며 郊外의 景勝地를 大規模의으로 修景한 것으로 보인다.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四卷(東城王 22年 500, A.D)에 「春起臨流關於宮東高五丈 又穿池養奇禽」이라 記錄되어었는데 이는 最近 그 一部가 發掘되어 우리나라 最古의 池塘임이 立證되었다.

또한 百濟武王 35年條(634, A.D)에 「穿池於宮南引水20餘里 四岸植以楊柳 池中築島嶼擬方丈仙山」이라하였는데 이는 扶餘에 있는 宮南池를 가르친 것으로 王宮 南쪽에 연못을 파고 20餘里나 되는 먼곳에서 물을 끌어들이어 연못속에 섬을 쌓고 연못周邊에 버드나무를 植栽하였다.

最近 公州 公山城에서 一部發掘된 연못의 形態는 速斷할 수 없으나 發掘部分의 形狀으로 보아 5×7段의 方池로 推定되며 宮中의 初期연못은 直線形의 小規模池塘에서 始作하여 漸次郊外에 大規模의 自然形池塘으로 發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百濟의 池塘造成은 水利土木技術을 크게 發展시켰으며 金堤 碧骨池와 같은 大規模貯水施設을 하기에 이르러 治山治水는 勿論 全天候營農을 뒷받침 한 것으로 풀이된다.

日本中期 古墳群으로 有名한 古市古墳群(大阪)의 大水路 大溝 등은 이 附近에 百濟渡來人의 集落遺跡이 있는 點으로 미루어 百濟人들의 技術에 依해 日本에서 처음으로 灌漑用水路가 開發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王辰爾의 先代가 百濟 16代 辰斯王의 아들인 辰孫王으로 그들이 日本에 移住하여 京都 葛野川(桂川)을 開發하였으며 大阪 枚方地方의 畚田開發과 淀川의 治水事業을 完成시켜 오늘날 日本의 庭園文化와 農業發展의 기틀을 마련하였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西紀 550年代에 百濟는 日本에 佛教文化의 傳達과 함께 瓦工 鑪盤工 畫工을 보내어 寺刹建築을 도왔으며 日本書紀 推古天皇 20年條(612, A.D)에 依하면 路子工을 日本에 보내 皇居 南쪽 狹에 須彌山을 만들고 吳橋를 架設한 苑圃를 造成하였다는 記錄이 있는데 이는 日本庭園의 矯矢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남아 있는 百濟文化의 遺蹟은 많지 않으나 定林寺社 五層石塔은 우리나라 石塔形式의 鼻祖를 이루고 있으며 扶蘇山과 公山城 一帶의 禁苑과 月涵池 石佛座像 石蓮池와 石水槽와 같은 庭園石造物로 미루어보아 素朴하고 부드러운 線이 自然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造庭하는데 있어서도 周邊景觀의 흐름이 無理없이 連結되고 既存의 自然景觀이 『主』가 되고 人工築造景觀이 『從』의 位置에서 融合되도록 努力한 흔적을 엿볼 수 있으며 既存 自然景觀과의 調和를 造庭上의 基本으로 삼고 있다.

新羅는 三國統一의 大業을 成就한 다음부터 造景事業에 力點을 둔듯하다. 文武王 14年條(674, A.D)에서 「王於宮內 穿池積石爲山 家巫山十二峰 種花卉養珍禽 其西部臨海殿 池今稱雁鴨池」라 하였는데 이는 慶州 半月城社 東쪽에 있는 雁鴨池(一名月池)를 말한 것으로 統一新羅時代가 이룩한 代表的 史蹟에 屬한다.

宮殿쪽에서 바라보면 연못 東邊은 弓字形으로 積石하여 自然스런 巫山十二峰을 造山하고 많은 怪石과 樹木을 심었으며 西쪽 언덕은 長大石으로 直線形의 築臺를 쌓고 물에 臨하여 榭亭을 짓고 연못 속에 築造한 大中小의 三神山는 三神山의 象徵이라 볼때 中國의 道家思想과 關聯된 神仙思想이 新羅庭園文化의 基本思想임을 알 수 있다.

記錄에 依하면 雁鴨池 外에도 滿月城과 明活山城을 비롯하여 瑤石宮 本彼宮 永昌宮 北宮, 東宮과 많은 四節遊宅이 있었으나 現在는 雁鴨池와 鮑石亭 曲水宴社外 몇군데의 城郭社가 남아 있을 뿐이다.

여기에 特記할 事項은 新羅時代에 東宮에 屬한 月池典과 月池獄典이라 부르는 造庭專擔職制가 있었으며 大舍 2名 水主 1各이 있어 지금의 雁

鴨池를 築造하였던 것으로 推定된다.

이와같은 新羅의 庭園은 神仙思想을 背景으로 한 縮景式庭園樣式이 發達되었으며 纖細하고 精巧한 庭園石造物은 또하나의 新羅庭園文化의 자랑이라 하겠다.

高麗時代에 이르러서는 建築的色彩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始作하였으며 宮闕中心의 庭園에서 宰相이나 顯貴들까지도 庭園을 造成하여 珍花名果木을 가꾸었다는 事實을 「東國李相國集」에서 찾아볼 수 있다.

朝鮮時代에 접어들면서 庭園思想과 樣式이 크게 發展되어 韓國的色彩가 짙어졌으며 特히 中期以後에는 陰陽五行說에 依한 風水地理의 影響을 받아 韓國固有의 露壇式花階가 出現되었다.

이와같은 露壇式花階는 宮中은 勿論 民家庭園에 까지 普及되었으며 百餘種에 가까운 庭園植物이 科學的인 種植法에 依해서 配植되었고 새로운 樹石庭園이 出現되었다.

한편 池塘의 形態가 아주 多樣化되고 樹亭建築技術이 急進的으로 發展되었으며 石池 石水槽 洗心石 石漏槽 長明燈과 같은 庭園構造物이 새로이 登場되었으며 花草牆과 煙家등의 特殊한 庭園施設物이 出現하게 되었다.

### 3. 韓國庭園의 空間構成

우리나라의 身分制度는 매우 嚴格하여 階級에 따라 住宅樣式과 그 規模가 달라지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上流層의 住宅을 基準으로하여 空間構成上의 特徵을 살펴보기로 한다.

自然樹林을 지나 住宅에 다가서면 視界를 遮斷하는 幃障이 보이고 豪邸임을 象徵하는 甬道를 大門이 그 中央에 있으며 大門안으로 들어서게 되던 幃障과 낮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前庭이 展開된다. 이는 主人의 通過空間이나 幃障사람들의 作業 및 生活空間인 셈이다.

前庭에서 右側 中門을 通過하면 舍廊에 이르게 되고 左側 中門속으로 안채가 보인다. 舍廊은 主人의 住空間이자 손님들의 接待空間으로 外庭이라 부른다. 이곳은 庭園의 重要한 一部로서 蓮池와 樹亭을 짓고 아름다운 花木과 果木을 심어 華麗하고 品位있게 處理된다.

안채에 連結된 空間이 內庭으로 閉鎖度가 가

장 높은 主婦中心의 生活空間이다.

안채의 뒷뜰은 後庭에 屬하며 垣牆에 둘러싸인 私生活空間으로 後苑에 連結된 傾斜面에는 固有의 花階가 造成된다.

또한 舍廊 뒷뜰에 祠堂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舍廊과 祠堂사이의 뜰을 中庭이라 부른다.

이와같이 前庭—外庭—內庭—中庭—後庭을 지나면 後園(苑)에 이르게 되고 이곳 自然樹林 속에는 別堂이나 祠堂이 있고 特히 規模가 큰 宮闕의 後苑에는 여러곳에 池塘과 樹亭을 建造하게 된다.

이와같은 낮은 牆壁으로 區劃된 空間內에는 上下 男女 社交 祖上崇拜 그리고 私生活을 즐길수 있는 自然休息空間 등 多樣한 機能으로 分化되어 各各 獨立性이 維持되면서 相互 交流할 수 있도록 하나의 中心軸으로 自然스럽게 連結되고 있다는 點에서 한 棟으로된 中國이나 西洋의 住宅 空間에서 찾아볼 수 없는 韓國의 特徵을 이루고 있다.

### 4. 韓國庭園의 構成技法

庭園을 만드는 첫째 要諦는 『高下 平正無凸凹 區窪易於洩水—善也』라 하여 敷地를 골라 濕한 곳이 없게하고 排水處理를 잘하는 것이 가장 重要한 일이라 하였다.

둘째 『牆院不可逼 可以受日光 列花盆二善也』 즉 垣牆을 낮게 쌓아 充分한 햇빛이 들게 하고 花階를 造成하여 花草와 花木을 가꾸는 일이라 하였다.

셋째 『四隅平直 無歪邪回曲 三善也』 등 凡治庭除有三善을 造庭上의 基本으로 삼아왔다. 既述한 세가지 要件中 排水處理는 住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가장 基本이 되는 것으로 濕地를 改良하여 庭園을 만든 좋은 例로 成倪의 『慵齋叢書』에 記述된 景福宮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濕地를 活用하는 方便으로 出發된 池塘의 築造를 契機로 樹亭을 비롯하여 優雅한 石橋 石漏槽 怪石 石蓮池등 石造物이 登場되었고 水利土木技術이 發達하였으며 植物素材를 심을 수 있는 素地가 마련되고 이들은 庭園構成上의 主要한 要素를 이루게 되었다.

庭園의 空間도 建物과 마찬가지로 平面과 立面的의 二要素로 構成되고 있다.

庭園의 平面處理는 主로 흙 물 그리고 地被植物 등과 같은 自然素材와 板石 磚돌 其他 人工素材를 活用하여 주어진 立地景觀과 視覺的으로는 勿論 機能的으로도 無理없이 連結되도록 하고 立體的으로는 여러가지 植物素材와 無機素材를 活用하여 空間의 機能에 따라 낮고 높게 視界를 遮斷하거나 借景을 끌어들이고 깊숙한 通景線을 形成하기 위하여 視界를 터주기도 한다.

庭園의 立地의 基盤은 一般的으로 北西쪽은 높고 南東向은 낮게하여 防風과 採光 地表排水 등 住生活의 快適性을 確保하면서 秀麗한 自然景觀을 借景으로 導入하려는 基本的配慮가 따르게 된다.

既述한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住宅建物이 하나의 軸을 中心으로 配置되고 外部空間도 이 軸에 따라 展開되며 自然스런 高低變化와 하늘을 向하여 無理없이 連結된 스카이라인등이 庭園空間의 主骨格을 이룬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庭園構成上의 主要素인 牆 池塘 花階 石造物과 庭園植物등을 對象으로하여 그 構成技法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牆

民家의 石塼이나 土塼은 草家住宅과 周圍의 自然景觀과도 잘 調和되어 아름다운 風景을 이루게 된다. 이와같은 素朴한 塼담장의 起源은 境界表示나 保護目的보다 敷地를 整地할 때 나온 돌을 손쉽게 處理 活用하려는 데에서 비롯되었으며 담장의 높이도 낮게 築造되었다.

그후 住宅建築樣式이 草家에서 瓦家로 바뀌게 되면서 돌과 흙을 섞어 意圖的인 담장이 登場하였으며 中流級의 住宅에서는 自然石과 石灰를 配合하여 裝飾的인 紋樣을 넣게 되었다. 特히 宮闕內的 塼은 여러가지 形象의 有色벽돌로 紋樣이나 動植物의 모차이크를 넣은 塼이 築造되었으며 그중 가장 華麗한 塼이 花階外壁에 속한 花草塼으로 日雲山石松鶴鹿龜不老草(靈芝) 등 十長生이 주가 된 生物的 要素를 繪畫的으로 描寫하고 있다.

이와같은 塼의 畫紋은 多樣하여 花鳥獸類와 四君子를 비롯하여 壽福 富貴 康寧 등 吉祥文字를 混用하므로써 庭園內 모든 構造物은 勿論 周邊 自然景觀과도 잘 調和되어 壁畫以上の 멋과 아름답

다음을 풍긴다.

### 2) 池 塘

물은 깨끗하고 시원하여 무엇인가 思索에 잠기게 하고 특히 흐르는 물은 生動的이며 새 希望을 안기게 하는 屬性이 있기 때문에 어느나라 庭園에서나 물을 즐겨 使用하고 있다.

또한 물은 環境創造의 源泉으로 韓民族은 예로부터 땅을 開發하기 앞서 먼저 水質源을 檢討하였으며 집터를 닦을 경우에도 排水를 위한 土工處理가 先行되었다.

물—산—하늘로 이어지는 自然空間의 흐름이 는 우리 人間이 離脫할 수 없는 母空間體系안에 담겨져 있는 位階秩序의 基範이라고 볼 수 있다.

靜的인 水面에 投影되는 自然風景과 實體로 이어지는 人工構造物 등의 向天的인 優雅한 地上景觀과의 흐름……

이와같은 現象은 慶福宮內 慶會樓를 비롯하여 香遠池 慶州의 雁鴨池 扶餘의 宮南池 昌德宮禁苑內의 芙蓉池와 半月池 등에서 우리는 서로다른 景觀과 自然現象을 鑑賞할 수 있게 된다. 三國時代로부터 朝鮮時代末期까지에 築造된 池塘의 形態와 그 特徵을 要約하면 첫째 池塘의 形態는 直線形 卵形 弓形 析表形 등 多樣하며 朝鮮時代에 이르러 方池속에 圓島를 築造한 陰陽和合型의 연못이 漸次 많아졌다.

이는 儒敎의 影響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며 方池는 大地와 陰을 圓島는 陽과 하늘을 象徵하고 있으며 陰과 陽의 結合에 依해서 새로운 生命을 誕生시키는 宇宙의 攝理를 잘表現하고 있다.

이와같은 方池는 大部分 연못주위를 長大石으로 直線處理하고 中島를 둥글게 築造하게 되는 데 이와같은 연못의 形態를 陰陽和合型이라 부른다.

또한 연못가에 建造한 樹亭의 構造와 外部形態에 있어서도 陰陽和合型을 찾아볼 수 있다. 昌德宮禁苑內의 芙蓉亭의 경우 建造物底面의 半이 땅위에 나머지 部分이 물위에 떠있는가 하면 外部形態에서도 땅위에 位置한 建物의 窓살이 井字形인데 反하여 물위 部分이 亞字形 窓살로 되어 地面과 水面에서의 外觀上의 變化를 試圖하고 있다.

또한 尊德亭의 境遇에서도 建物의 半이 水面

에 기둥이 박혀 있고 窓門處理가 各各 다를뿐 아니라 지붕 側面의 吐首도 다르다. 水面 위쪽은 물과 關係되는 鯪頭이나 땅 위쪽에는 龍頭形의 吐首를 設置하는 式의 陰陽和合型의 庭園建築樣式을 찾아볼 수 있다. 既述한 바와같이 大部分의 연못속에 中島(當洲)가 있으며 中島의 數에 있어서도 一島型이 가장 많으나 雙島型과 三島型이 있으며 이들 形態는 圓形이 많으나 慶會樓 연못과 같이 直線의인 方池속에 네모꼴의 같은 크기의 雙島로 된 연못이 있는가 하면 연못 外郭線이 地形에 順應하여 直線과 弓字形自由曲線으로 連結되고 연못속에 크기와 形態가 다른 세계의 섬으로 이루어진 雁鴨池와 같은 折衷型의 연못도 있다.

강한 直線으로된 方池의 境遇 西歐의 整形式 연못과는 그 性格이나 外觀이 전혀 다르다 딱딱하고 곧은 연못의 強한 線은 周圍의 建物外觀上의 부드러운 曲線과 雄壯하고도 秀麗한 山岳美 그리고 自然地勢를 尊重하면서 個體美가 最大限 表現되도록 配植된 自然스런 樹冠美등 서로다른 諸景觀 構成要素들이 大小 高低 凸凹 硬柔등 陰과 陽의 位置에서 서로 融合되고 立體的으로 調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연못에 쓰인 植物의 種類는 많으나 主로 柳 松 竹 紫微 槐 榆 香木 檉 海棠 石榴 梨 躑躅 蓮 花 菖蒲등이 使用되었으며 中島에 松 竹 紫微등이 主로 植栽된 것은 神仙思想의 影響이라 풀이 된다.

### 3) 石造物

韓國의 傳統的인 庭園에서 石造物이 찾아하는 比重은 매우크다.

代表的인 石造物로서 石蓮池 石水槽 洗心石 石橋 石漏槽와 楡등 물과 關聯되는 것이 많으며 그 外 石塔 石盆과 怪石 石燈(長明燈) 庭燎臺 石階段과 隅石 旗牌臺 石獸物 石床과 椅石등 매우 多樣하다 其中 石蓮池는 立地與件上 연못을 팔 수 없는 곳에 여러가지 形態의 石蓮池를 設置하고 있다.

百濟時代의 大通寺社에 있었던 石蓮池는 現在 公州博物館에 保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石蓮池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는 花崗岩으로 만든 둥근 쟁반形態의 것으로 佛座와 같은 15個의

둥근 蓮花紋(21×15cm)이 새겨져 椽石위에 얹혀 있으며 높이 0.72m에 폭은 1.34m에 達한다.

이와는 달리 扶餘博物館에 保存하고 있는 사발형 石蓮池는 土器로 본받아 만든 것으로 아주 素朴하고 부드러운 曲線美가 넘쳐 흐른다.

統一新羅時代의 것으로 알려진 法住寺의 大型 石蓮池(高 1.95m 둘레주위길이 6.65m)는 半開된 蓮花모양으로 上端周圍에 石欄干이 세워지고 그아래 石池腹面에는 大小 두점으로부터 蓮瓣이 새겨져 있으며 그중 큰 辨葉속에 寶相華文이 새겨져 있다. 基臺는 구름처럼 솟아오르고 그밑에 八角形의 基石이 있고 여기에도 蓮瓣이 새겨져 가장 精巧하고 華麗한 石蓮池에 屬한다.

朝鮮時代에 접어들면서 士大夫의 庭園에도 石蓮池가 普及되었으며 그 形態도 漸次多樣化되었다.

景福宮 交泰殿 花階에는 方形의 涵月石池를 비롯하여 荷葉과 蓮花를 彫刻한 圓形石池와 거북이 臺石위에 雙龍틀림으로 彫刻된 圓形의 巫具用石池등이 珍奇한 怪石과함께 놓여져 있다.

既述한 여러가지 形態의 石池는 돌을과서 만든 移動式 小形石池이나 規模가 크고 固定된 바위 속을 뚫어만든 沈床型石池가 朝鮮成宗 15年(1484, A.D)에 建立한 昌德宮 通明殿 西便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地表面보다 낮은 沈床型으로 中央에 石橋가 놓여 있으며 地表面에는 陽溝型의 楡과 沈砂用水槽등이 架設되고 石池內部에는 當洲를 象徵하는 두개의 怪石이 놓여 있으며 石橋 東側에 地表面보다 若干 낮은 庭燎臺가 設置되어 있다.

이와같이 크고 작은 石蓮池의 壁面이나 臺石에는 荷葉과 蓮花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形象이 刻해져 있다. 특히 네모꼴石池의 境遇 上端네모서리에 개구리가 물에서 기어 오르는 모습을 陽刻한 것도 있어 靜的水面에 動的 律動感을 풍기게 한다. 石盆은 珍奇한 怪石을 올려 놓은 臺石으로 方形 六角形 八角形 圓形등 그 形態가 多樣하며 石盆壁面에는 植物 形象을 刻한 것이 많이 있다.

珍奇한 形象石을 비롯하여 男女를 象徵하는 陽石과 陰石등의 怪石은 宮中은 勿論 士大夫의 庭園에서도 가까이에서 石景을 벗하고자하는 欲求

에서 愛用되어 왔다.

新羅時代に 築造된 雁鴨池에는 護岸石築 上段部와 中島에 640餘個의 珍貴한 怪石을 使用하여 海岸邊의 奇岩絶壁을 再演하고 있다. 여기에 使用된 怪石은 花崗岩과 砂岩의 二種類이며 黑綠色의 砂岩은 主로 石假山(巫山十二峰)과 中島內에 赤褐色系의 花崗岩石은 水邊에 樹石하고 있다. 홀로 세워진 돌이 있는가 하면 여러개를 모아 세운것과 重疊되게 모아 쌓는 세가지 樹石法을 混用하고 있으며 樹石方法도 怪石基部가 若干 땅에 묻히게 하되 비스듬이 눕혀 모가난 면이 잘 보이도록 樹石하고 있다.

또한 怪石을 群으로 모아 樹石한 民間庭園의 例를 朝鮮時代末期에 세운 慶州 崔植氏家의 中庭에서 찾아볼 수 있다.

赤褐色의 花崗岩怪石을 3 5 7의 群을 이루어 樹石하고 있고 橢圓形의 사철나무 基部에 動物이 가로누어 있는 形象의 怪石이 놓여 있으며 祠堂 앞 銀杏나무 根元部에는 한개의 自然石이 根縮石으로 使用되고 있다. 여기에서 特記할 點은 石盆없이 怪石을 群으로 樹石하고 있으며 常綠灌木과 怪石을 混用한 樹石技法을 들수 있고 樹石 方法에 있어서 높이나 크기가 서로다른 怪石을 뒷쪽으로 눕혀 돌表面이 잘 보이게 樹石한 點이라 하겠다.

石漏槽는 一般의으로 龍首나 龜首形이 많으나 鯨頭形과 荷葉을 刻한 特殊形도 있다.

石漏槽에 이르는 流水施設은 石製 木製 竹筒 흠을 구어만든 여러가지 輪을 使用하고 있는데 땅속에 묻힌 것은 陰溝 地上에 露出된 것을 陽溝라 부른다.

石水槽는 물과 關係되는 主要한 庭園石造物로서 그 形態도 매우 多樣하다.

百濟時代의 것으로 推定되는 長橢圓形石槽(扶餘博物館所藏品)는 自然形의 板石을 파서 물이 고이도록한 自然 그대로의 形象이며 돌의 幅이 좁은 쪽에 흠을와 아래쪽으로 물이 흘러 고일수 있게 하고 幅이 넓어짐에 따라 깊게 파여져 있다.

이 외에도 높이와 幅이 비슷한 圓形水槽와 네모꼴을 볼 수 있으나 高麗時代 以前에는 自然形石槽가 主가 되어있으며 거친 表面에 부드러운

線이 흘러 素朴한 맛을 풍긴다. 그러나 그후 朝鮮時代に 만들어진 石水槽는 規模가 작아지고 線이 강한 네모꼴에 表面도 매끈하게 다듬어져 강한 人工美를 풍기게 한다.

#### 4) 花 階

風水地理에 따라 宅地를 고르게 되면서부터 後庭에 露壇式으로 된 花階가 登場되었다. 南低北高形의 傾斜地를 活用하기 위하여 長大石으로 壇을 만들어 花木을 심고 그 사이에 石蓮池 怪石과 煙家등이 非對稱의으로 配置된다.

景福宮 交泰殿 後庭인 蛾帽山에는 繪畫的으로 修飾된 四個의 아름다운 煙家를 中心으로 그 주위에 涵月池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形態의 石池와 怪石 海時計가 配置되고 그 사이에 牡丹 躑躅 紅桃 櫻桃 鳥竹 등이 自然스럽게 配置되어 後苑의 樹林帶로 連結되고 있다.

花階의 主景을 이룬煙家の 構造를 보면 花崗岩臺石위에 붉은 벽돌로 六角形이되게하여 그 위에 木造建物에서 볼 수 있는「굴도리」를 붉은 벽돌로 만들어 쌓고 「서가래」모양의 벽돌을 위에 얹혀 처마를 두르고 검은 기와로 지붕을 씌워 그 위에 네모꼴의 窓口를 架設하고 있다. 이와같은 煙家の 壁面에는 「十長生」과 花鳥形象을 박아넣고 사이에 吉祥文字를 有色벽돌로 組立하여 만든다. 煙家の 壁面에 出現되는 繪畫的紋樣의 主體는 松竹梅菊蓮 牡丹鶴鹿蝶등이며 松과 鶴 松과 鹿과 같이 複合的으로 組立하기도 한다.

樂善齋 뒷뜰의 花階는 屋內에서 觀望하기 좋게 만든 것으로 傾斜面을 五段으로 區劃하고 幅 1.3m의 壇을 造成하여 躑躅 牡丹 芍藥등을 群植하고 花階 아래 平地中央部에 네모꼴 石水槽를 놓았으며 그 左右에 五個의 怪石이 石盆위에 놓이고 검은 벽돌로 만든 두개의 素朴한 煙家가 左右에 配置되고 있다.

景福宮 慈慶殿의 後庭은 거의 平坦地로서 煙家를 따로 만들지 않고 담장兼 굴뚝의 機能을 함께 할 수 있는 花草牆을 쌓아 牆壁面에 十長生 花紋으로 裝飾하고 그 上下面에 맹수의 머리 形象을 組立하여 만든 花草牆이 後庭의 主景을 이루고 있다. 또한 昌德宮 大造殿 後庭의 境遇는 建物後面에 넓고 平坦한 空地가 展開되고 담장 가까이의 傾斜面을 三段의 壇을 만들어 後苑에 自

生하고 있는 落葉潤葉樹의 흐름을 끌어들이 連結시키고 花階한쪽에 煙家한채를 세운 아주 素朴한 自然風의 花階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朝鮮時代 末期(高宗 1901, A.D)에 德壽宮內에 세운 靜觀軒이 높은 곳에 位置하고 있으며 前面에 展開되는 傾斜地를 三段으로 區劃하고 花階를 造成하여 牧丹을 群植하고 있는데 建物前面에 만든 花階로서는 이것이 처음이다.

이와같이 露壇式花階는 주위의 立地條件과 後庭의 넓이 主建物の 性格에 따라 造庭技法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 5) 庭園植物과 配植技法

三國時代에서 朝鮮時代 末期까지 約 2,000年 間에 韓半島에서 植栽된 庭園植物의 種類는 約 108種으로 中國을 비롯한 18個 地域産이나 中國原産이 大半을 占하고 있다.

이들 庭園植物을 形態의인 特性別로 分類하여 보면 草本과 木本 常綠과 落葉과의 比率이 비슷하여 3:7이며 이와 같이 落葉性潤葉樹가 主로 쓰인 것은 韓半島의 立地의 特性을 잘 나타낸 것이라 하겠으며 常綠樹爲主의 日本庭園과는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다. 한편 利用 目的別로 分類하여 보면 花木이 60%로 가장 많고 열매 其他 順으로 珍奇한 花木類가 많이 愛用되고 열매등 實用性을 重視한 것으로 풀이된다.

韓民族이 가장 즐겨 使用한 植物로는 桃 梅 松 竹 牧丹 杏 柳 石榴 梧 李 梨 薔薇 梔 冬栢 櫻 槐 檉 槿 橘 棗 桐 檜 側栢 丁香 躑躅 木芙蓉 柰 櫻桃 枳實 黃楊 山茶 蕘 海棠 佛頂花 柰 曠山紅 銀杏 柿 柘 林禽 紫微 榆 赤木 紫檀등을 비롯하여 蘭 菊 蓮 萱 葵 石昌蒲 芭蕉 麥門冬등의 草本植物을 들 수 있다.

既述한 植物素材를 中心으로 配植技法과 그 背景을 살펴보면

첫째 陰陽五行說의 原理가 配植에 많이 應用되어 왔다.

17世紀 初葉에 發刊된 洪萬選의 山林經濟 卜居編에 依하면 大門앞 멀리 떨어진 곳에 槐樹 三株를 심으면 三代가 富貴하여 榮華를 누리다 하였으며 建物 가까이와 東南向에는 大樹를 避하고 西北쪽에 大樹를 심어 光風을 막도록함은 宅地內의 陰陽을 調節하기 위한 配處에서인듯 하다.

또한 『凡宅若無左流水 右長途前汚地 後丘陵即 東種桃 柳南種梅棗 西種槐榆 北種柰杏亦可代, 青龍白帝朱雀玄武』라 함도 陰陽과 風水地理說의 原理에서 나온 種植法의 一面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植物의 生態의 特性에 알맞는 配植 및 管理技法 등이 일찌기 開發되어 活用되어 왔다.

山林經濟에 依하면 卜居 種樹 및 養花編에 樹種別로 生態의 特性에 알맞는 栽培法과 植栽 및 管理技術을 仔細하게 記述하고 있으며 林園十六志 第一卷에 造庭上의 基本要件에서부터 庭園植物의 栽培 및 移栽法 登盆法 養花 및 拒霜法과 水利土木 그리고 氣象에 이른 幅넓은 科學的인 造庭技術을 收錄하고 있다.

「大樹不宜近軒」이라하여 建物가 가까이에 深根性 喬木의 植栽를 禁하고 있고 「屋後不可種芭蕉」나 「紅東西白植」등의 花木類의 配植原則은 植物의 陽光要木疫(耐陰性)에 따른 植栽方位를 잘 表現하고 있으며 햇빛이 잘 들지 않은 곳에는 十長青의 一種인 麥門冬을 地被植物로 使用하였고 柳類등 好濕性植物은 水邊에 植栽하여 왔다.

또한 『枳樹多種作籬籬亦可防賊』이라하여 城郭 外側에 팽자나무를 植栽하여 왔으며 樹木移植管理에 있어서도 『移樹勿令土上舊痕四隔大柱用繩紆之勿令大風不搖根』한다는 記錄으로 미루어 일찍부터 支柱木을 使用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植栽方法에 있어서도 固有의 樹形이 維持되고 空間을 獨占하거나 密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單木植栽를 配植上의 基本으로 삼고 있으며 三株植栽와 五株植栽도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充分한 間隔을 띄워 심되 各樹木의 位置가 어느 地點에서 보아도 같은 線上에 重疊되지 않게 不等邊三角植栽를 하였다.

또한 對稱이 되는 雙植을 禁하고 있으며 不得已 雙植하여야 할 境遇에는 서로 다른 樹種을 植栽하거나 같은 樹種을 심을 때에는 크기가 다른 素材를 選擇하여 主從關係가 明白히 識別되도록 配植하고 있다.

朝鮮時代に 있어서 上流住宅의 典型的인 配植 模範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門庭…門前 가까이에 大樹植栽와 兩般되게 심는 것을 禁하고 있으며 멀리 떨어진 곳에 一株

또는 三株의 槐木이나 檉木을 植栽하고 연못이 있을 경우 東向에 수양버들을 한구루 植栽한다.

○前庭……一般的으로 한구루의 落葉喬木을 심되 通行이나 作業上 不便이 없고 建物앞 空間을 지나치게 遮閑하지 않도록 中門에서 떨어진 담장쪽에 植栽하고 있다. 이와같이 前庭에 植栽한 樹木을 庭心樹라 부르며 前庭이 좁아 喬木植栽가 困難한 경우에는 雙槩를 大小 主從關係가 維持될 수 있도록 配植하고 있다.

○外庭……舍廊 周邊에 外庭은 主人의 日常生活空間이자 來訪人의 接待空間으로 그 家門의 品位가 깃들고 華麗하게 만들어진다. 舍廊과 안채 사이의 담장 한쪽에 梅 無花果等 小喬木性 落葉潤葉樹를 1~3구루심고 樹下에 珍奇한 怪石을 놓고 있다. 한편 舍廊 東南向 담장 쪽에는 王梅 躑躅 映山紅 梔子 海棠 桃等 華麗한 灌木性 花木類를 植栽하고 舍廊東北側 丘陵에 竹林을 造成하거나 紫薇 松 木瓜 香木 冬栢등이 主로 植栽되고 있다.

○內庭……안채의 앞뜰을 넓게 確保하여야 하므로 담장쪽에 붙여 東南向에 桃 柿 杏 無花果 西側에 拓 梧桐 石榴등을 植栽하여 안마당에 그늘이 들지 않도록 하고 實用性에 置重하여 配植하고 있다.

○後庭……強한 對比보다는 同質性과 統一性을 附與하고 아늑한 私生活空間의 분위기를 造成하기 위하여 櫻桃 牡丹 芍藥 梅 梨 林禽등의 花木과 果木이 主로 植栽된다.

○中庭……舍廊과 祠堂 中間에 位置한 空間으로 祠堂안에는 植物을 심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規模가 클 경우에는 銀杏 柏松 香木 紫薇中에서 選擇하여 1~3株를 植栽한다.

以上과 같이 建物의 機能과 外部空間의 性格에 따라 樹種과 配植法이 달라진다. 다만 各局部의 獨自性이 維持되게 하면서 全體空間의 흐름이 이어지고 乾濕 明暗 視界上의 高低變化 借景의 導入 審美性과 實用性등을 考慮하여 陰陽의 調和와 全體空間의 均衡이 이루어지도록 配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韓國庭園의 特徵

### 1) 自然崇拜思想

『10年을 經營하여 草蘆三間 지어내니 나한間 달한間에 淸風한 間 맡겨두고 江山은 드릴때 없으니 돌려두고 보리라』는 時調에서 엿볼 수 있듯이 韓國人의 造園心理上의 背景은 『自然속에 태어나 自然으로 돌아간다』는 自然崇拜思想에 그 기틀을 두고 있다.

人間도 生物社會를 構成하는 그 一部에 지나지 않는다는 謙遜한 姿勢를 갖고 大自然 그 自體가 庭園의 一部分이라 生覺하여 왔으며 自然에 손을 대야할 경우에는 『自然과의 調和』에 모든 忍耐力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結果로 開發과 保全(Conservation)의 均衡이 維持되고 人間性이 넘쳐흐른 快適한 生活環境을 維持할 수 있었다고 본다.

산이 높으면 높은대로 골이 깊으면 깊은대로 주어진 與件을 最大한 살려 높은 곳에는 亭子를 짓고 낮은 곳에는 못을 파는등 最小限의 人工을 加하여 自然과 融合된 合天의인 自然風景式 庭園樣式을 發展시켜 왔다.

### 2) 空間構成에 있어서의 陰陽調和

『陰陽符合 天地交通 內氣萌生 外氣形成 內外相乘 風水自成』이라는 옛말에서와 같이 宇宙內에서 일어나는 모든 現象은 太極에서 分岐된 陰陽의 두힘에 依해서 消長하는 것이니 人生의 榮枯 盛衰은 水火木金土 即 五行說에 依하여 左右된다. 特히 『五氣行於之中 發而生乎萬物』이라하여 五行의 氣가 땅속에서 活動함으로써 萬物이 蘇生되기 때문에 陰陽 五行은 生物社會의 보급자리이며 造庭上의 基本이라 하겠다. 天十地 陰十陽 直線的 庭園의 構成要素와 曲線的要素들이 自然스럽게 融合된 우리의 庭園樣式은 伊太利의 露壇式이나 佛蘭西의 平面幾何學式庭園樣式에서와 같은 大膽한 直線的 平面處理技法과 비슷한 點이 있으나 有機素材와 庭園構造物이 非對稱的으로 配置되어 自然스런 立體景觀을 構成하고 있다는 點에서 西歐의 整形式 庭園樣式과 크게 다르며 縮景의이며 描寫의인 日本의 自然風景式庭園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많은 特徵을 지니고 있다.

### 3) 뛰어난 水景處理技法과 裝飾의意匠

陰陽和合型을 비롯한 多樣한 形態를 이룬 연못과 精巧한 庭園石造物 秀麗하고 繪畫的인 花



草牆과 煙家 등의 庭園建築物을 爲始하여 建物の 欄干에서 窓살에 이르기까지 그 裝飾의 意匠이 뛰어난 뿐 아니라 이들 모두가 建物 外部의 自然景觀과의 調和에 焦點을 맞추고 있다는 點에서 外國의 庭園構成技法과 다른 또 하나의 特徵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特記하여야 할 點은 規模가 큰 연못의 築造를 契機로 水利土木技術과 庭園內의 水景處理技法이 일찍이 開發 普及되었고 農業發展의 기틀을 이룩하였으며 이와같은 先進技術을 日本에 傳導하여 庭園文化와 農業發展에 크게 寄與한 바 있다.

#### 4) 科學的인 配植管理

우리나라 氣候風土에 알맞고 季節의 變化美가 豊富한 落葉潤葉性 花木과 果木을 主로 하여 이들의 生態의 特性에 맞는 合理的인 栽培 및 配植管理法이 活用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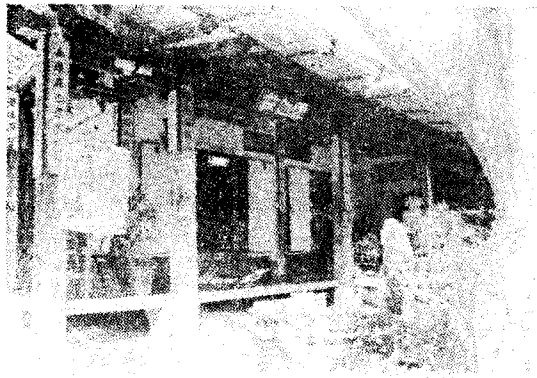
配植方法에 있어서도 規則的이고 反自然的인 對稱植栽를 避하고 點的이며 主從關係가 明確한 自然配植法이 開發되어 合天的인 自然風景式 庭園樣式을 더욱 發展시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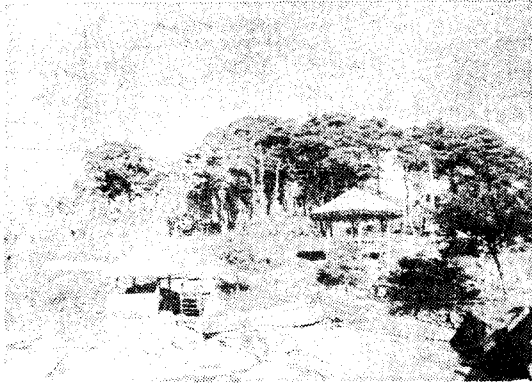
〈忠南 牙山 外峯里 李用琦氏 庭園의 石盆과 怪石〉

## 6. 參考文獻

- 三國史記 金富弼 1145年, 金鐘權譯 廣曹出版社 1972  
 東國李相國集 李奎報 1240年, 古典刊行會 東國文化社 1958
- 三國遺事 一 然 1280年, 李丙濂譯 大洋書籍 1972  
 養花小錄 姜希顔 1474年, 李炳薰譯 乙酉文化社 1973  
 山林經濟 洪萬選 1715年, 景仁文化社(影印本) 1974  
 林園十六志 第1卷 徐有樂 1800年頃, 서울大學校(〃) 1966
- 朝鮮의 風水 村山智順 1931, 金益桓譯 學文閣 1971  
 朝鮮新羅臨海殿庭園 原熙 1932, 日本園藝學會誌 3-2  
 京城府史(1) 京城府 1934, 朝鮮印刷株式會社  
 京城府史(2) 京城府 1936年代 " "  
 " (3) " 1941 " "
- 國寶圖鑑 國立博物館 1957, 文教部  
 韓屋과 그 歷史 申榮勳 1975, 東夷文化社  
 韓國造園植物의 史的考察, 鄭瞳旣 1977, 全大林演報 (2)  
 韓國庭園의 池塘形態 및 構成에 關하여 鄭瞳旣 1978, 韓國造景學會誌 6-1  
 造景史 尹國炳 1978, 一潮閣  
 公州郡誌 公州郡 1979, 公州郡廳



〈忠南 牙山 外峯里 李用琦氏 外庭과 怪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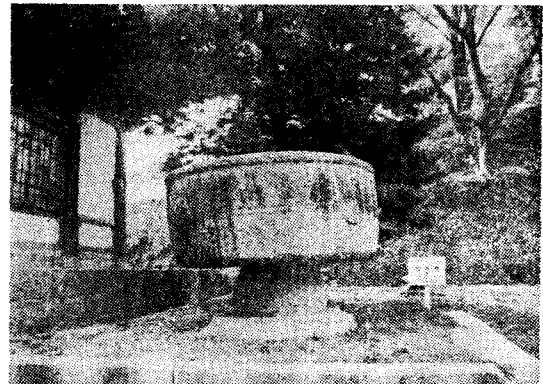
〈忠南 牙山 外岩里 마을앞 모정〉



〈扶餘 宮南池〉



〈忠南 牙山 外岩里 草家와 돌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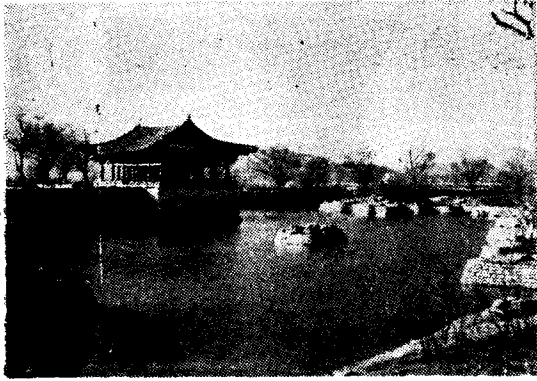
〈大通寺社 石蓮池(百濟時代) (公州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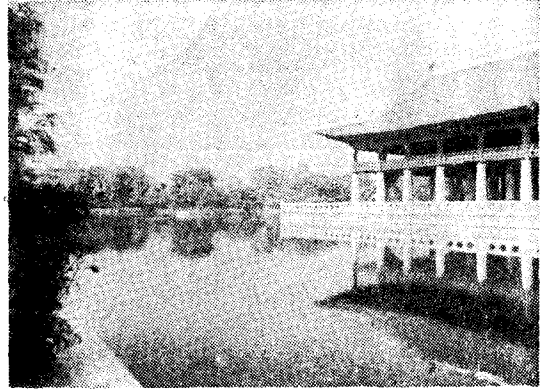
〈公山城에서 새로히 發掘된 百濟時代 池塘  
(築造年代 西紀 500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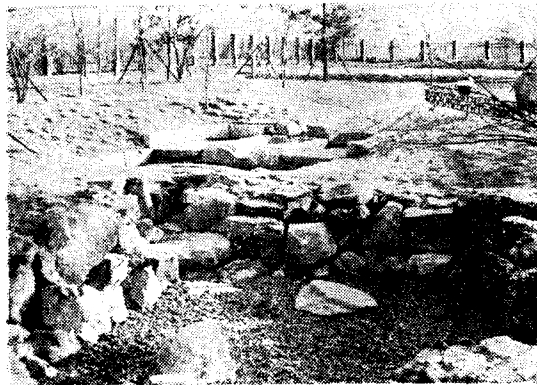
〈山景文碑(百濟時代) (扶餘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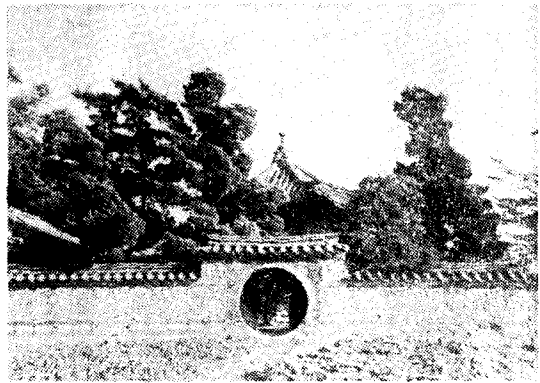
〈慶州 雁鴨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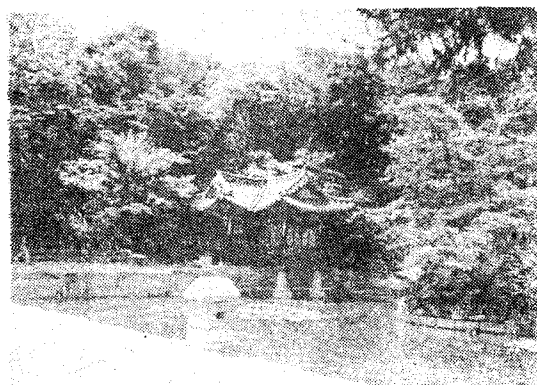
〈慶福宮 慶會樓斗 方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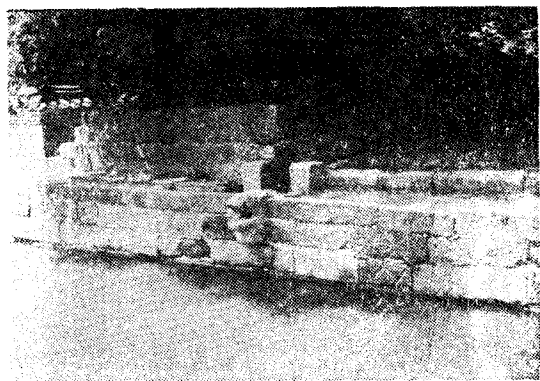
〈慶州 雁鴨池 入水溝〉



〈昌德宮內 花草牆斗 圓形中門〉



〈昌德宮禁苑內 芙蓉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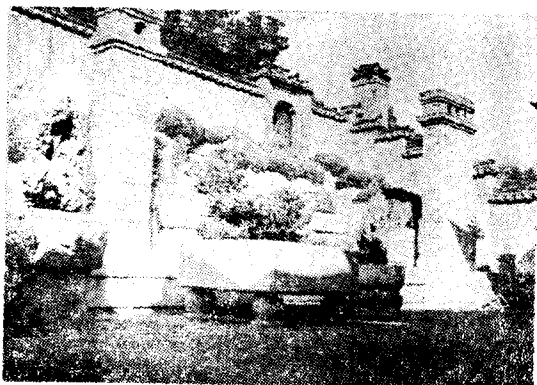
〈鯨頭形 石瀉槽(慶福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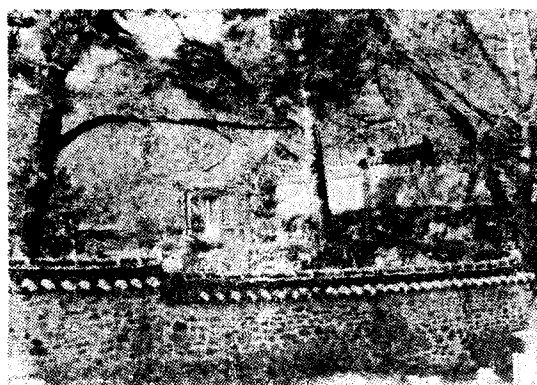
〈慶福宮 交泰殿 花階〉



〈昌德宮 演慶堂 앞 怪石〉



〈昌德宮內 樂善齋 花階〉



〈全南 潭陽 南面に 있는 瀟灑園(別野庭園)〉



〈昌德宮 樂善齋 後庭에 있는 怪石〉



〈慶州 崔植氏家の 樹石庭園〉